

어명소 제2차관 “수도권 어디서나 혜택을 누리는 GTX 확충 ” 강조

- 29일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」 착수보고회 점검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「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*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,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하였다.

* (수행기관) 한국교통연구원, (주)태조엔지니어링, (주)유신 컨소시엄
(수행기간) '22.6 ~ '23.6 (12개월) , (계약금액) 1,260백만원

□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-A·B·C노선의 연장과 D·E·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(안)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.

○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(안)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,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.

□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“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”고 당부하면서

○ “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,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2. 6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